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지민 초능력 수의사로 코믹수사극 '힙하게'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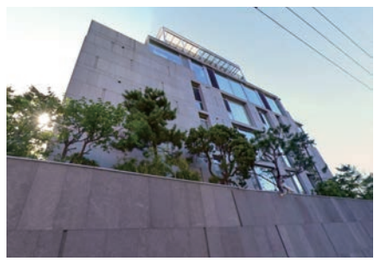
〈JTBC 토일드라마〉



학창 시절 편찮으셨던 할머니에 안타까움을 느껴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꿈꿨던 한지민은 현실적으로 의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다. 대학 2학년 때 예쁜 외모로 눈길을 끌어 SBS 드라마 '올인' 아역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가족과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되어 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을 마칠 때까지 '올인' 제작팀은 배우가 결정되지 않아 오디션 없이 그를 송혜교 아역으로 캐스팅했다. 21세임에도 풋풋한 외모와 순수한 매력을 가진 중학생 역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고 '동안 스타'라는 수식어를 얻어 스타덤에 올랐다.

그해 MBC 드라마 '좋은 사람'에서 첫 주연을 맡아 신하균, 조한선의 사랑을 받는 히로인 순정인 오순정 역으로 주연을 꿰찼다. 하지만 실력이 한참 부족했고 신하균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부담감에 연기를 그만두려 했다. 그는 "현장에 가면



모든 스태프가 나를 기다렸고 몇 번을 다시 촬영했다. 집에 와서 매일 울었다"고 부담과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여러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연기의 한 단계 발전을 이뤄냈다.

2003~2004년 방영한 MBC 사극 '대장금'에서 장금이(이영애 분) 친구이자 신분 상승에 실패하는 비련의 의녀 신비 역을 맡아 조연으로 출연했다. 주연보다 조연에 오히려 만족감을 표현한 한지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좋았다"면서 "대장금을 통해 현장을 조금씩 배워갔다"고 설명했다.

2005년 스크린에도 진출해 영화 '청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기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앞선 작품에서 청순하고 착한 캐릭터를 연기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당차며 남성적 성향이 짙은 일제시대 실존했던 여류 비행사 이정희 역을 맡아 새로운 매력을 뽐냈다. 그는 "장진영 선배에게 통신하는 신을 찍고 나서 처음으로 해냈다는 쾌감을 느꼈다"고 뿌듯함을 표현한 바 있다.

연기에 재미를 붙인 뒤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로맨틱 코미디에 정형화된 이미지와 여성 캐릭터의 한계성을 깨기 위해 주연에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조연에 도전했으며 2018년에는 영화 '미쓰백'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미쓰백'은 자기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미쓰백 백상아(한지민 분)가 세상에 내몰린 자신과 닮은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참혹한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한지민은 거친 피부 분장과 탈색한 짧은 머리, 그리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강한 여자를 표현하는 외모 변신뿐만 거침없는 말투,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등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 모습을 선보였다. 미쓰백의 굴곡진 삶을 표현하며 이전보다 한층 깊어진 연기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드라마 '위대한 유산' '경성 스캔들' '이산'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 '옥탑방 왕세자' '하이드 지킬, 나'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봄밤' '우리들의 블루스'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MBC 연기대상에서 '이산'으로 여자우수상을, '경성스캔들'로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우수연기상, 네티즌상, 베스트커플상을 받아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영화 출연작은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플랜맨' '역린' '장수상회' '조제' '해피 뉴 이어' 등으로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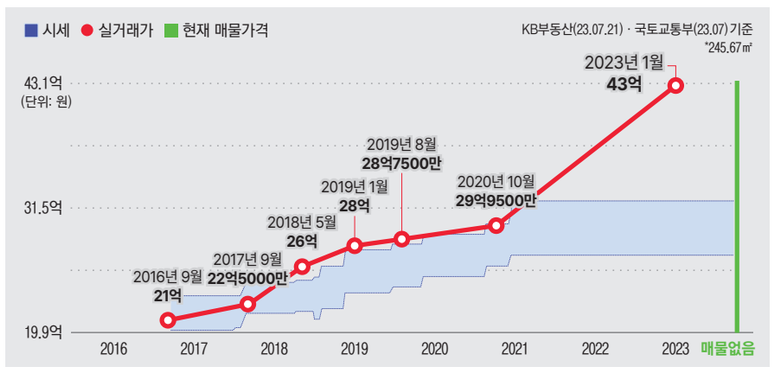
한편 한지민이 8월12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되는 새 JTBC 토일드라마 '힙하게'로 돌아온다. '힙하게'는 범죄 없는 청정 농촌 마을 무진에서 우연히 생긴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동물과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성실한 오지라퍼 수의사와 서울 광역수사대 복귀를 위해 그녀의 능력이 필요한 욕망덩어리 엘리트 형사가 펼치는 코믹 수사 활극이다.

한지민은 어쩌다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득템한 수의사 봉예분을 연기한다. 정 많고 오지랖도 넓어 열혈 형사 문장열(이민기 분)에게 제대로 낚여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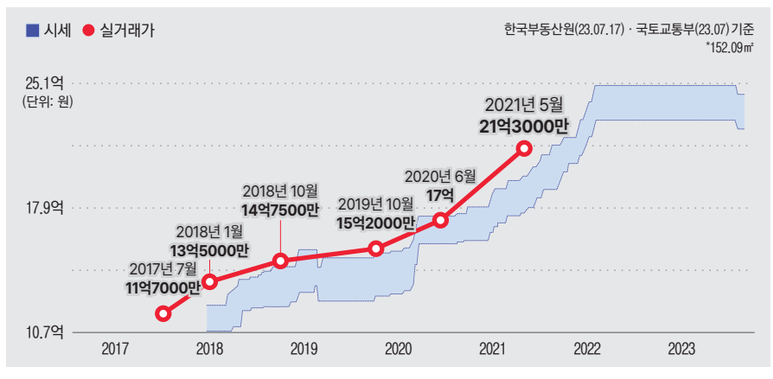
'힙하게' 돌아오는 한지민은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R빌라(사진) 한 호실을 34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공급면적 213.27㎡(약 64.51평), 전용면적 179.19㎡(약 54.20평) 규모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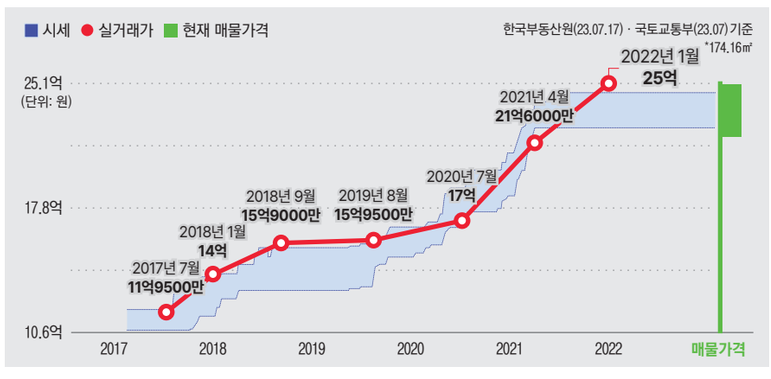
방배대우유로카운티



래미안방배아트힐



방배아크로리버



박영옥 현)스마트인컴 대표이사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는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국제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투자연구소, 대신증권 국제투자자문 펀드매니저를 거쳐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청년미래네트워크 이사, 통일과 나눔 공동대표,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대표는 사업가 마인드와 주인정신에 입각해 투자하는 농심(農心)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연 50%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거두며 '주식농부'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널리 알려졌다. '잘 아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2006년 투자회사 스마트인컴을 설립해 경영 컨설팅과 투자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저서는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야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투자자의 시선' '주식회사의 약속' 등이 있다.



남궁근 전)서울과학기술대 명예석좌교수



남궁근 전 서울과학기술대 명예석좌교수는 전북도 새만금정책포럼위원회 위원장, 익산시가 주관하는 익산철도정책포럼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익산 남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거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등을 지냈다. 올해 5월27일 익산 남성고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남성인상'을 수상했다. 새만금정책포럼위원회가 구성된 2012년부터 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정책 개발을 지원해온 공로 등이 인정됐다. 또 다양한 정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신호식 현)트릿지 대표이사



신호식 트릿지 대표이사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원자재 트레이더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무역 플랫폼을 기획했지만 원자재보다 농축수산물 정보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었다. 2015년 문을 연 트릿지는 전 세계 수만 종의 농·축·수산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주문을 넣으면 현지 농장 실사, 공급자 이력 검증, 계약 협상, 패키징, 운송, 세관 업무 등 다양한 무역 업무를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농·축·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 기업이다. 핵심 강점은 농산물 15만 종의 가격과 품질, 무역 데이터 등을 집대성한 데이터 플랫폼이다. 델몬트, 월마트, 까르푸 등 농수산식품 도소매 기업뿐 아니라 호주 농림부, 싱가포르 식품청, 맥킨지 등 국내외 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1600가구 숲세권 단지로 탈바꿈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1600가구·최고 23층 규모의 '수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먼저 지역의 일체적 정비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교통난을 완화했다. 또한 구역계 확장과 연계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2종7층→제2종주거)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유연한 높이 계획 등을 가능하게 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홍은동 8-400일대 구상도. 서울시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계획을 했다. 또한 단지 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였다. 기존 포방터길을 활용한 공공보행통로 설정·보차혼용 옥천교 확장을 통한 보차분리 등 단지 내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리는 '수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홍제천·북한산·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했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북한산과 홍제천·홍은중앙로가 맞닿는 단지 좌우측 디자인 앵커 등 특색있는 주동 배치로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홍제천변 개방감 확보와 북한산 능선에서 홍제천으로 연결되는 순응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도 도모했다.

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의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가락우성1차 838가구 재건축

서울 송파구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 일대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 가락우성1차 아파트는 수도권 전철 8호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으며 1986년 준공된 9개동·838가구의 노후된 아파트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구역면적 3만5043.7㎡·용적률 281.88%이하·최고층수 26층·총 967가구(공공주택 92가구 포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지 내 저층주거지에서 접근 용이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가락우성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락우성1차아파트 위치도. 서울시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